

간추린 청렴 소식

[1] 검찰본부, 전국 청 '청렴업무 담당자 교육' 실시
대검찰청 검찰본부는 '19. 9. 19.(목) ~ 20.(금), 일선 청 청렴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.



검찰 청렴정책, 자체청렴도, 주요 검찰사례, 청탁금지법 등
알찬 강의와 분임별 토의 시간을 통해
청렴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♡

[2] 검찰본부, '2019년 하반기 현장점검' 실시
대검찰청 검찰본부는 '19. 9. 26.(목), 안양지청을 시작으로 2·4그룹 지검 등 총 28개 청에 대한 '2019년 하반기 현장점검'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청렴 정책과 행동강령 이행실태, 민원환경 점검 등
다양한 업무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컨설팅을 통해
더욱 청렴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^^

[3] 천안지청, '청렴다짐 및 현충사방문' 행사 실시

천안지청(지청장 나찬기)은 신규직원의 청렴의식 고취를 위해 간부들과 청렴 다짐 시간을 갖고 아산 현충사를 방문했다고 합니다.



멋진 검찰수사관이 될 새내기들의 청렴행보를 응원합니다!

[4] 수원지검, '소·확·청 캠페인' 시행



수원지검(검사장 윤대진)에서는 '소소하지만 확실한 청렴 캠페인'으로 간부들이 추천하는 생활 속 작은 청렴 실천 사례나 격언을 청내 LED 등에 게시하고 있습니다.

'청렴은 생활 속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!' 다들 알고 계시죠?



칭찬합니다

검찰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일선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검찰 구성원을 소개하고 칭찬하는 코너입니다. 이번 주인공인

광주지검 **김병원 민원실장**
& **서은중 실무관**은

혈압으로 쓰러져 호흡곤란에 빠진 민원인을 보고 침착하게 응급조치와 119신고를 하였으며, 구급차가 도착하자 민원인을 부축하고 신속히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 민원인의 아들로부터 국민감동직원 추천을 받았습니다. 아래는 그 추천 내용입니다.

... 실신하여 호흡이 곤란한 아버님을 보고 민원실 직원인 서은중님과 김병원 실장님이 나오셔서 소지하고 계시던 타월들로 아버님의 땀을 닦아 내면서 의자에 바로 눕혀 응급조치를 해 주었고 바로 119에 신고 해 주었습니다 ...

두 분의 친절하고 고마운 도움으로 검찰청은 가기 싫은 곳이라는 선입견이 사라졌고, 편안하고 아무 거리낌 없는 마음으로 검찰청 문을 들어서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...

보고 읽는 스크린 속 청렴!

감성충전, 청렴 명대사

생각을 조심해라. 말이 된다.

말을 조심해라. 행동이 된다.

행동을 조심해라. 습관이 된다.

습관을 조심해라. 인격이 된다.

인격을 조심해라. 운명이 된다.

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.

- 영화 '철의여인(The Iron Lady)' 중 -



10월의 추천영화는 **철의 여인**
(2011년 개봉 / 감독 필리다 로이드)으로

영국 최초의 여성수상이자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마가렛 대처(메릴 스트립 분)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.

언젠가, 지난 공직 생활을 되돌아볼 날에,
'정직하고 청렴하게 지내왔다'고 스스로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
바른 공직관을 가지고 생활하는 검찰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
청렴 상식이 쑥쑥!

청렴이 있는 문화이야기

고객이 통화 후 남기고 간 100원 미만의 '낙전'만 해도 연 14억 원에 육박했던 공중전화의 황금기, 전화국에 입사하게 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.

잡급직(계약직)이었던 그가 맡은 일은 공중전화에서 걷어 온 집금통(돈통) 안의 동전을 세는 일이었습니다. 출근한지 보름쯤 지난 어느날 업무를 잘 챙겨주던 선배가 술을 사주겠다고 불러내 "공중전화는 낙전과 불량주화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금된 돈 전액을 불입하지 않아도 된다. 주인 없는 돈을 우리가 좀 가지는게 대수냐"며 "좋은게 좋다."고 자신들과 보조를 맞춰줄 것을 은근 내비쳤습니다. 그 돈이 유혹의 덫이었습니다.

의사의 오진으로 중병을 앓게 된 돌잡이 딸의 병원비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형편에 잠시 흔들렸지만, 그는 동네 마지막 훈장으로 청렴과 예절을 곳곳이 지키며 살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.

'성인군자는 못 되어도

도둑으로 살지 말자는 삶의 신념이
고작 동전 몇 푼에 흔들려야 되겠는가'



결국 선배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았고 이 일은 왕따의 도화선이 되어 '그가 뽕땅을 하고있다'는 주객이 전도된 추문에까지 휩싸이게 되었습니다.

지옥 같은 날을 보내던 중 다가온 재계약 날, 현금을 만지는 자리에 추문이 있는 직원을 둘 리 없다고 생각한 청년은 아내 몰래 사물함을 비울 보자기를 준비했습니다.

하지만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. 3명의 재계약 대상자 중 탈락 1순위 일 것 같던 그 만이 재계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

알고 보니 일 년 통계로 완성되는 '낙전발생률'이라는 투명한 재계약의 잣대가 있었고 회사는 마지막 한 닢의 동전까지 묵묵히 불입한 청년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. 그는 그로부터 5년 뒤 청렴과 결백을 무기로 내부 공채를 거쳐 정규직원이 되었습니다.

'구성원 각자 평소 올바른 소신을 지니고
홀연히 다가온 유혹과 핼박 속 선택의 기로에서
자신의 신념을 곳곳이 지켜내는 감직함'이야말로
청렴 사회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요?

✓ 사례 출처 : 권익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일반부문 최우수상 수상작
변재영 - 언지말이 인생의 부활

상식이 쑥쑥! 선물이 팡팡!

청렴 퀴즈 이벤트



다음 질문의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~!

조선시대 임금이 집무를 볼 때 곤룡포와 함께 착용했던 이 관모에는 모체의 뒤쪽에 매미날개 모양의 소각이 달려 있으며, 이는 매미의 인내와 무욕을 잊지 않고 선정을 배풀어 달라는 바램을 뜻한다고 합니다. 이 모자(관)는 무엇일까요?

- ① 원유관 ② 면류관 ③ 익선관

※ 힌트 : Monthly청렴 9월호를 참고하세요~

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 **10명**을 추첨하여
문화상품권(2만원 상당)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.
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.

★ 응모기간 : 2019. 10. 21.까지

★ 응모방법 : 700spo69a@spo.go.kr

지난 9월 정답은

② **不立** 이었습니다.

정답자 중 아래의 10명을 추첨하여
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렸습니다. ^^



추첨
당첨

박진영(대전), 성기범(고양), 강상엽(안동), 성주희(창원),
신연주(정읍), 김채경(의정부), 한성우(서울서부),
안성연(서울중앙), 윤창규(서울북부), 배일근(외부)



민원인의 목소리

민원인의견 사례를 소개합니다

불안감을 갖고 방문하는데,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
입구에서 부드럽게 잘 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.
입구부터 불친절하니 거부감이 들고 좋게 평가할 수
없습니다.

무언가를 처음 맞닥뜨린 이미지는 오래도록 기억된다고 합니다.
민원인이 접하는 안내실은 경찰청의 첫인상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
좀 더 친절하게 대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.

전화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절차, 갖추어야
할 서류를 미리 설명해 주었습니다. 방문 시에도 너무
친절하게 도와주려 애써주셔서 매우 감사했습니다.

순천지청(피해자지원) 담당자의 배려와 친절한 태도에
칭찬을 남겨준 민원인의견이었습니다 ^^

